

나눠쓰면 아끼고 커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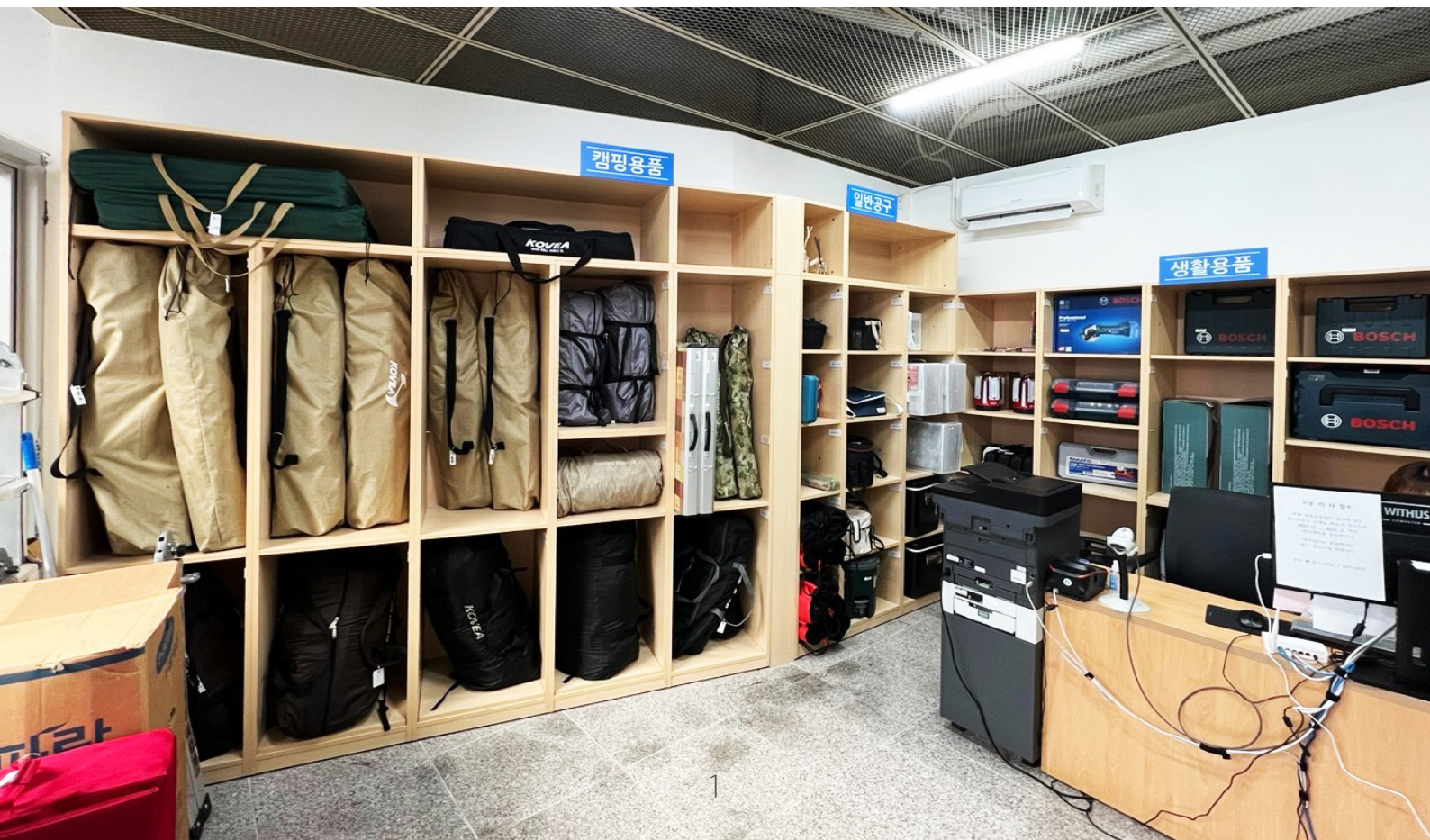
1년에 한 두 번 쓰는 물건, 꼭 구입해야하나?

광주광역시 남구는 ‘경쟁과 독점을 넘어, 공유와 협동으로’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소유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품 공유센터를 통한 물품 대여를 구상하게 됐다.

그러나 작은 물품공유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장소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옆 주차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장소 결정 후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도 고민이 컸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높은 주민 이용률을 위해 물품공유센터의 고유한 콘셉트 구상과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 수요조사가 필요했다.

물품공유센터 내부



주민 의견, 타 지자체 물품공유센터 사례에서 답을 찾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품공유센터 및 타 지역 물품공유센터의 물품대여 현황 및 주민들의 사전 의견 조사를 통해 물품 품목을 선정했다.

결제 및 대여체계 구성방법, 운영인력 배치방안, 대여물품 사후관리 등 운영시스템 구성을 위해 서울 지역 물품공유센터 및 광주광역시 물품공유센터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코드를 활용한 대여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공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다

처음에는 물품공유센터의 소규모 공간과 적은 물품 수로 주민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구 발행 소식지와 각종 자생단체 회의자료, 특히 남구청 공식 블로그, 카카오톡 남구이야기 채널,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다.

신규 물품이 준비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제품소개와 사용매뉴얼을 안내하며 물품공유센터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간혹 주민들의 제품 활용 방법 미숙지로 제품 파손이 발생했지만,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보다 제조사 A/S 처리 등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용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한 물품공유센터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만족 한다'고 평가했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도 남구는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유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시켜 생활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공유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물품공유센터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현황

위치/규모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남구청 별관 주차장 1층), 21.43㎡(약7평)

물품현황 : 62종 139개(일상용품 14종, 캠핑용품 36종, 생활공구 12종)